



◆ 2026 신년인사회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26년 1월 5일(월), 14:00
- 장 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2층)
- 주요내용 : 식전공연, 영상상영, 신년사, 축사, 경제단체 지원금 전달식,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1월 5일(월)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2층)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등 초청인사와 회원사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오년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영상상영, 신년사, 축사, 광양시 경제단체 지원금 전달식, 케이크 커팅,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광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광양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의 국회통과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며 국가 경쟁력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6년은 우리 지역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이다. 민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광양상공의소는 광양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서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경제단체 지원금 전달식에는 실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내 4개 상공인단체(동광양상공인회, 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와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에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이 전달되었다.



이어 진행된 신년맞이 케이크 자르기 행사와 건배제의를 통하여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포부와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 기업사랑 시민 한마음대회

○ 행사개요

- 일 시 : 2025년 11월 10일(월), 16:00
- 장 소 : 광양실내체육관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개회사, 축사, 우수기업인 및 기업사랑 시민포상, 승합차량 전달식,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 영상상영, 퍼포먼스, 축하공연, 경품추첨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11월 10일(월) 16시,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장, 고재윤 포스코광양제철소장 등 기관장과 기업인,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기업인의 날’ 기념 「기업사랑 시민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창의예술고 학생들과 광양시립국악단 식전공연과 함께 개회사, 축사, 우수기업인 및 기업사랑 시민 포상, 승합차량 전달식,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탁식(포항상공회의소), 영상상영, 퍼포먼스, 축하 공연 및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광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양시 기업인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기업도시 광양의 시작이며, 미래 비전을 다짐하는 중요한 기념일이다. 지금의 성장을 위해 애써온 기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기업사랑 시민 한마음대회」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노동의 존엄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소통하며, 시민들과 함께 광양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현대소방 권순용 대표이사'



광양시 최고근로인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최준길 차장'



광양시 산업평화상 '한국노총 광양연합 노동조합 동후지부 박종명 지부장'



우수기업인상 '㈜혜성티앤시 김영조 대표이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패 'EEW KHPC 탁관규 대표이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대표이사'



광양상공대상 'OCI(주) 김유신 대표이사'



기업사랑 시민대상 '광양만환경포럼 허형채 대표'

이어진 우수기업인 포상으로 '광양시 최고경영인상'에 '㈜현대소방 권순용 대표이사', '광양시 최고근로인상'에 '포스코광양제철소 최준길 차장', '광양시 산업평화상'에 '한국노총 광양연합 노동조합 동후지부 박종명 위원장'이 각각 광양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우수기업인에 대한 '국회의원 포상'은 '㈜혜성티앤시 김영조 대표이사'가 수상하였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패'는 'EEW KHPC 탁관규 대표이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감사패'는 (주)포스코퓨처엠 엄기천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선정하는 '광양상공대상'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한 'OCI(주) 김유신 대표이사'가 수상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도시 만들기엔 헌신한 '광양만환경포럼 허형채 대표'가 '기업사랑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다.



승합차량 전달식은 우광일 회장이 사재 4,000만원을 출연해 광양시 관내 범죄예방과 방범활동 지원차량으로 쓰일 스타리아 차량을 광양시 여성자율방범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탁식에는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과 김구암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시에 포항상공회의소 회원사 13개사 임직원이 모금한 기부금 9,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광양시가 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로 웅비해온 지난 1년의 여정을 돌아보는 영상과 함께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퍼포먼스’에는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 전라남도의회, 광양시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 포스코광양제철소,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 전국이통장협의회 광양시지회,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광양시청년연합회,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광양시상공인협의회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힘차게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축하공연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 보컬리스트 가수 최진희가 출연해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참석자 모두에게 깊어가는 가을의 감동을 선사하였다.

◆ 「기업이 존중받는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육교 현판식

○ 현판식 개요

- 일 시 : 2025년 8월 13일(수), 09:00
- 장 소 : 중마동 컨부두사거리 육교 주변 교통섬
- 주요내용 : 기념식,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



광양시는 8월 13일 중마동 컨부두사거리 육교와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육교에 ‘기업이 존중받는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현판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현판은 길이 22m, 높이 1.5m 규모로 제작됐으며, 교통량이 많은 도심과 관문에 설치해 시민과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5월 8일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5월 27일 완료하고, 7월 25일 설치를 마무리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업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광양시의 기업사랑 정신과 글로벌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상공회의소 의원 13명이 참석해 제막과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글로벌 미래도시’ 실현 의지를 다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현판 설치에 ‘기업이 존중받는 글로벌 미래도시’라는 광양시가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광양이 전국 제1의 산업도시가 되는 날까지 기업인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현판 설치를 건의한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응원하는 현판을 설치해 주신 광양시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50% 고관세로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권향엽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25년 10월 31일(금), 17:00
- 장 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K-스틸법' 추진현황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애로사항 청취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권향엽 국회의원을 초청해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권향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축하와 함께 대표 발의한 K-스틸법에 대한 소개, 지역 기업과의 소통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과 노란봉투법 시행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있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산업도시인 광양시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광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바쁘신 국정일정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통하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간담회에서 공유된 K-스틸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도 지정되어 지역 철강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 대통령이 위원장인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주양돈농협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

○ 전달식 개요

-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 17:30
- 장 소 : 광양시청 만남실
- 주요내용 : 환담, 기부증서 전달(제주 → 광양 2,000만원), 기념촬영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9월 9일(화)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이 광양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과 (주)디와이이, (주)포스코 엠씨머티리얼즈 그리고 제주시 공무원 및 제주양돈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교차기부는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과 고권진 조합장이 국제로타리 봉사활동 인연으로 지난해 광양시와 제주시에 각각 개인 최고액 교차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와 제주양돈농협 임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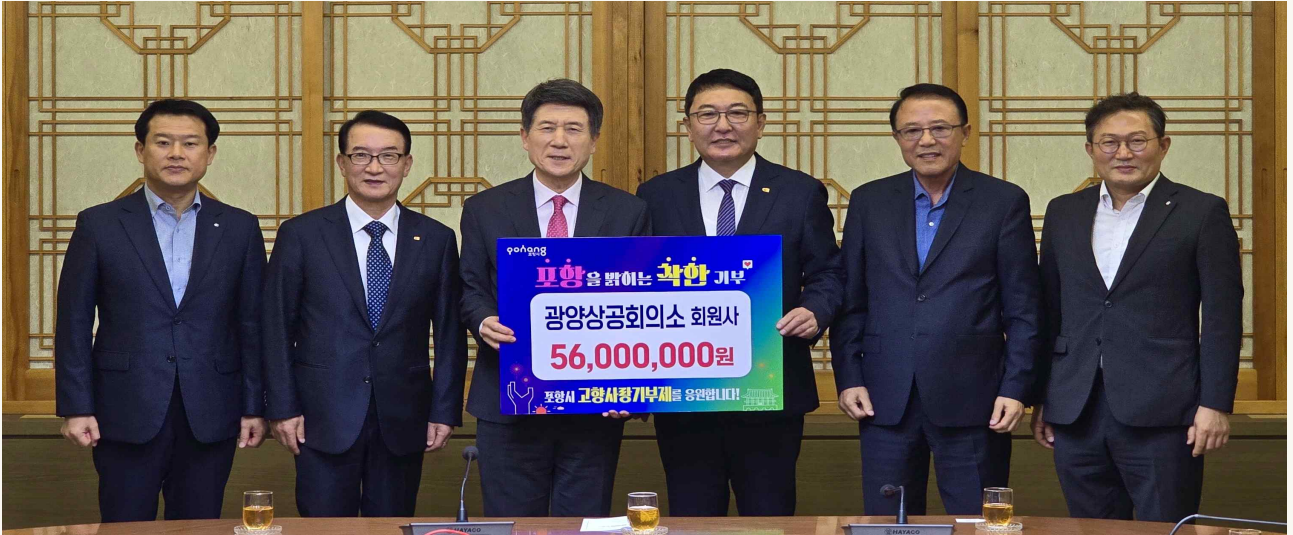
우광일 회장은 “교차기부에 참여해주신 제주양돈농협과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확대를 통해 양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 많은 기업체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는 다음달 제주시를 방문해 회원사에서 모금된 교차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며, 자매도시 포항시의 포항상공회의소와도 별도의 교차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금 전달식

○ 전달식 개요

- 일 시 : 2025년 9월 23일(화), 15:30
- 장 소 : 포항시청 대외협력실(9층)
- 주요내용 : 환담, 기부금 전달식(광양 → 포항 5,600만원), 기념촬영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9월 23일(화) 포항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금 5,6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기탁식은 이강덕 포항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액 참여사인 (주)광양기업 황재우 회장 그리고 교차기부 기관인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양시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는 지난해 우광일 회장과 나주영 회장이 양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을 각각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양 상의 회원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추진되었다.

먼저, 광양상의는 20여개 회원사 임직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총 5,600만원의 기부금을 이날 전달하였고, 포항상의도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11월 10일)'에 직접 방문하여 모금된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광일 회장은 “자매도시인 포항시와의 상호 교차기부가 회원사 임직원으로 확대되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회원사 임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의는 제주양돈농협과의 교차기부도 추진 중이며, 지난 9일 제주양돈농협 기부금 2,000만원이 광양시에 전달되었다.

※ 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회원사 명단(20개사, 가나다 순)

- (주)광양기업, (주)거양이앤씨, (주)금풍공업, (주)대아엠, (주)드림피아, 씨피엠솔루션(주), (주)에스엔엔씨,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이엔에스, 조선내화(주), 중앙이엠씨(주), 케이스틸(주), 케이엠씨해운(주) (주)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포스코인터내셔널(주) 광양LNG터미널, (주)포스코퓨처엠, (주)포스플레이트, 포트엘(주), (주)프롬스, (주)혁신안전기술, (주)효석

◇ 광양상공회의소 제주시에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금 2,300만원 전달

○ 전달식 개요

- 일 시 : 2025년 10월 25일(토), 10:30
- 장 소 : 제주 애월읍 새별오름
- 주요내용 : 기부금 전달식(광양 → 제주 2,300만원), 기념촬영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10월 25일(토) 제주 도새기축제 개막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금 2,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식은 김완근 제주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과 교차기부 기관인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양시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는 지난해 우광일 회장과 고권진 조합장이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올해는 제주양돈농협이 지난 9월 광양시에 기부한 데에 이어,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들이 동참해 기부금 2,300만원을 마련하며 지역상생과 화합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우광일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제주시와의 상호 교차기부가 확대시행되어 지자체 간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는 포항시와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교차기부를 추진 하고 있다. 지난 9월, 포항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6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오는 11월 10일 개최되는 ‘제4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 「기업사랑 시민 한마음대회」에서 포항상공회의소가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제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회원사 명단(17개사, 가나다 순)

- (주)거양이앤씨, (주)금풍공업, (주)금호전력, (주)드림피아, (주)디와이이, 성무전력(주), 씨피엠솔루션(주), (주)에스엔엔씨, 이앤티스소재(주) 광양지점, 중앙이엠씨(주), 케이엠씨해운(주), (주)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주)포스코퓨처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주), 포트엘(주), (주)프롬스, (주)효석

◇ 시민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관내기업 CCTV설치 기탁금 전달식

○ 전달식 개요

-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10:00
- 장 소 : 광양시청 만남실
- 주요내용 : 환담, 기탁금 전달(2,700만원), 기념촬영



광양시는 12월 9일 시청 만남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회원사 13개 기업으로부터 시민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CCTV 설치 기탁금 2,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CCTV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탁식은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경찰서 관계자와 기탁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탁금은 시내 주요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CCTV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발전과 공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준 13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안전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상공회의소와 회원사들은 2023년에도 CCTV 설치를 위해 1억 7천여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광양시는 현재 1,600여 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생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관내기업 CCTV 설치 참여 회원사 명단(13개사, 가나다 순)

- (주)거양이앤씨, (주)광양기업, 광양농업협동조합,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주) 광양시지부, (주)세명기전, (주)신진기업,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이엔에스, 오씨아이(주) 광양공장, 중앙이엠씨(주), (주)태성이앤지, (주)화인

◇ 광양상공회의소, '철강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사업' 시행

- '철강업종 및 연관 기업' 재직 근로자 및 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 '근로자안심패키지' 1인 최대 40만원, '재직자 기숙사 임차지원' 임차료 100%(최대 30만원*6개월)
- 사업기간 : 2025. 08. 01. ~ 12. 31.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7월 14일(월) 공고를 통해 철강업종의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강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남도'가 장기불황과 관세조치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고용둔화가 발생하는 철강분야 근로자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 사업으로 ▲근로자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재직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자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공고일 이전(2025.07.13.)까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철강업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기부담분), 건강검진비(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자기부담분), 통신비, 문화·체육활동비, 주거비(월세) 등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2025.05.01. 이후)에 대해 1인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자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공고일 이전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차료 100%(월 30만원*6개월)를 소급하여 지원한다.

우광일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종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민생 안정과 소비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사업'은 8월 1일부터 온라인(이메일)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 가능한 기업체 명단 및 자세한 내용은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철강업종 및 연관 기업 인정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기준 1차 금속 제조업(C24)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증 내 철강업종으로 명시된 기업 ▲2024년 기준 철강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철강기업의 협력사 및 파트너사 (자료확인을 통한 인정) 등

◆ 회원사 소식

▶ 회원사 창립기념일 (25년 10월 ~ 12월)

창립일	업체명	창립일	업체명	창립일	업체명
10/01	에스엘피(주)	11/01	(주)한진	12/01	아르고마린토탈(주)
10/01	(주)대광	11/03	(주)세명기전	12/01	(주)포스코이앤씨 광양사무소
10/01	(주)지엘테크	11/05	삼진기업(주)	12/01	(주)금풍공업
10/01	(주)백제	11/05	(주)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12/01	(주)디와이이
10/01	혁성실업(주)	11/07	동주종합건설(주)	12/05	포트엘(주)
10/07	(주)에스앤지건설	11/08	OCI(주) 광양공장	12/06	(주)포렌
10/09	(주)좋은사람들	11/10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12/07	(주)프롬스
10/11	거명이앤씨(주)	11/10	(주)명신수도	12/09	포스낙(주)
10/12	(주)EEW KHPC	11/11	인선이엔티(주)광양	12/09	농업회사법인 부지농원(주)
10/13	SK이노베이션 E&S	11/15	(주)에스디글로벌	12/10	(주)해성티앤시
10/14	(주)효석	11/16	알엠테크(주)	12/19	(주)광양테크
10/20	(주)대아엠	11/16	(주)한일종합상사	12/20	성무전력(주)
10/30	(주)금호전력	11/16	두원기업(주)	12/23	(주)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10/31	(주)지케이	11/17	(주)만보중공업	12/29	(주)에스더블테크
11/01	이앤티소소재(주)	11/20	광주은행 동광양금융센터	12/29	(주)에어릭스 광양사업소
11/01	국민은행 동광양지점	11/23	(주)금호		
11/01	구양실업(주)광양공장	12/01	(주)광희		

▶ 회원사 창립기념일 (26년 1월 ~ 3월)

창립일	업체명	창립일	업체명	창립일	업체명
01/01	(주)드림피아	01/22	(주)포스코디엑스	03/03	(주)에스엔테크
01/01	(주)원테크	01/23	포스코플로우(주)	03/03	(주)에이비알
01/05	(주)장원엔지니어링	02/01	(주)혁신안전기술	03/11	(주)현대대코빌
01/08	(주)포스로지텍	02/01	(주)엠티에스코리아	03/20	(주)성원
01/09	(주)성광기업	02/04	(주)대한이엔지	03/21	(주)태성이엔지
01/15	(주)한테크 광양공장	02/16	(주)지티이노베이션	03/22	포스코인터내셔널(주) 광양UNGE터미널
01/18	(주)디더블유머티리얼즈	02/23	KMC해운(주)	03/23	케이씨안전기술(주)
01/22	(주)동부종합건설	02/24	(주)중원로지스	03/26	(주)라인이엔지
01/22	(주)포스플레이트	03/01	에스지하이텍(주)		

※ 모범사원 표창 신청 안내

“광양상공회의소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범사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표창대상 : 회원사 임직원 (1명 추천)

○ 표창훈격 :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 신청방법 : 표창신청서 및 공적조서 작성 후 제출

○ 문 의 : 광양상공회의소 총무부 T. 061-793-0012

◆ 상공회의소 주요 동정

▶ 주요동향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설성 김종호 선생 31주기 추모식



2025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방문



광양소방서 축서기 간식 전달



2025년 4분기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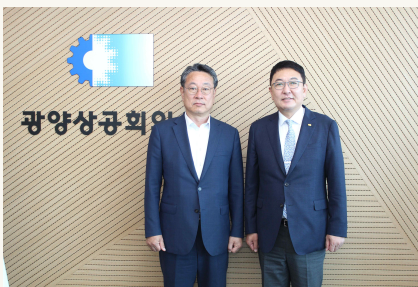
광양상공회의소 제32차 상임위원회



2025 광양시·광양상공회의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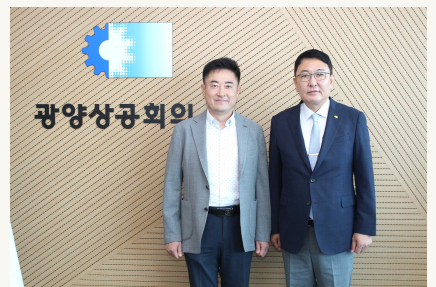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3개시 공동 기자회견



광양시 김정원 부시장 내방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대표이사 내방



한국산업인력공단 박태훈 전남지사장 내방



순천세무서 박진찬 광양지사장 내방



순천KBS 최석준 국장 내방



전남드래곤즈 송종찬 대표이사 내방

'K-스틸법' 통과와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역사이자 미래입니다.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우리 지역은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철강산업과 함께 터전을 일구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미 관세협상에서의 철강 제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과잉, 급변하는 친환경 정책,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에 상정된 'K-스틸법'은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광양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전환 촉진, 연구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회복 등 실효성 높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결단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추진 중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도 매우 시급합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지정 추진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보호 아래 위기기업과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소상공인,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상회가 지난 3년간 실시한 '경기전망조사(BSI)' 결과 12분기 연속 기준치 미달이라는 냉엄한 현실은 지역 경제의 위기가 이미 장기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의 위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K-스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엄중히 호소합니다. 이는 광양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철강산업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2025년 11월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K-스틸법’ 통과, 제도약의 전환점

광양시가 지난 11월 20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데 이어, 11월 27일에는 모두가 고대하던 ‘K-스틸법’의 국회 통과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는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온 모든 분들의 헌신이 이룬 값진 결실입니다.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철강의 도시 광양이 국가적 지원체계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정인화 광양시장님을 비롯해 전라남도과 광양시 등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스틸법’을 발의하고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신 권향엽 국회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철강산업이 친환경 전환과 기술 혁신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의미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따른 지원과 ‘K-스틸법’ 시행의 실효성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저탄소·녹색철강 지원을 통해 ‘수소환원제철’을 실현하는 등 철강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법정경제단체로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K-스틸법’ 통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철강산업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

국내 철강산업 위기 상황 극복방안 건의

2025. 10. 27



광양상공회의소
포항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유례없는 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방안 건의

□ 건의 배경

- 미국발 관세폭탄, 중국산 저가철강 공급과잉, 4기('26~'30) 탄소배출권할당량 급감이라는 **유례없던 삼각파도로 국내 철강산업 침몰위기**
 - * '23년 대비 '24년 영업이익: (포스코) △40% (현대제철) △80%
- 국회 최초 여야 합의로 'K-Steel법' 발의('25.8.4., 여야 106명 공동)등 수출 중추 철강산업 희생 위한 국가 차원 본격 논의에 착수
- ☞ 그러나, 법 제정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시간 소요** 예상
- ☞ 존각을 다투는 **철강산업 붕괴 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총력적·실효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위기 상황

- **(수출감소)** 최대 철강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철강 관세 2배 인상('25.6, 25%→50%)으로 **대미 수출 대폭 감소** 예상**
 - * '22년 이후 미국은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국내 철강 수출량 중 13.1%)
 - ** '24년 4.3억불 규모, '25년 9월 1~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
- **(내수위기)** 내수부진과 함께 중국·일본산 저가 덤핑재 지속 유입
 - * 국내 철강 수입량의 83%가 중국·일본 저가 덤핑재
 - * 열연 가격평균('20-24) : [내수] 961천원/톤 [수입] 900천원/톤 (내수비 -61천원)
- **(탄소규제)** 제4차 기간('26~'30) 배출권 할당계획(안)('25.末 확정 예정)에서는 제3차 대비 **연간 할당량 대폭 축소** 예상(△19%)

-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력단가 상승으로 수입재 반사이익 발생
 - * 현 할당계획(안) 강행시 제조업 전기료 연간 2.5조원 증가 예상(에너지경제연구원)
 - * 중국·일본 철강업은 배출권거래제 원가부담 없어 상대적 경쟁우위 발생
- 저탄소 철강재 시장 본격 형성 전으로, 철강사의 실효성 있는 탄소 감축 투자 확대에 한계
 - * 수요자의 저탄소 철강재 구매 및 프리미엄 지불의향 미약하여, 철강사 탄소 저감 철강재 생산설비 가동률 확보 어려움 발생 및 원가 손실 가능성 高
 - ** 탄소저감 철강재 생산 설비 가동 : 현대제철 ('26. 2월), 포스코 ('26년 하반기)

👉 **생산량 감소**(’24년 생산량 10년내 최저 수준), **공장 폐쇄**(포스코 1제강 공장, 현대제철 포항 2공장 등), **영업이익 감소** 등 철강업계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 급격히 강화된 할당계획으로 인해 **적자구조 고착화시 철강산업 자체 고사 초래**(제2의 석유화학 산업 상황 우려)

□ 경쟁 선진국의 철강산업 지원 현황

- (EU, CBAM) 역내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고탄소 기업에게 동등 부담 부과
 - * Carbon Border Addjustment Mechanism: 탄소배출 규제 弱 국가의 기업이 EU 상대로 수출시 비용 지불토록 하는 제도('23년 법률제정, '26년 본시행)
- (EU, SG) EU로의 급격한 철강 덤핑 방지 위해 무관세 쿼터 대폭 감소 조정('25.4.~) → 할당량 초과분에 25% 관세 부과
 - * 저탄소 투자지원, 철강세이프가드 자유화율 축소(1% → 0.1%) 등 지원병행
- (미국) 에너지 보조금, 수소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프로젝트 (CCUS)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 (일본) 철강사 탄소저감 투자비 지원 및 탄소저감 철강재 인센티브

□ 건의 사항

① K steel 법' 조속 제정

- '25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신속히 처리되고, 법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철강특위 설치 ▲탈탄소 철강기술 지원 ▲국내 산업 보호조치 등

②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격상 추진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실효성 있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예산·조직 등 차질없이 지원

* 산업부는 ▲공급과잉 대응 ▲수출경쟁력 회복 ▲저탄소 전환 ▲안전 인프라 첨단화 ▲상생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준비중

③ 4차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 (할당총량 및 감축경로 재검토) NDC 목표 달성 전제로 계획기간 초기 연도 할당총량 및 감축경로 재검토, 완화 등 합리적 조정 필요

* 현 할당계획(안)은 2030 NDC보다 급격한 배출량 감축 요구

- (시장안정화 예비분* 축소) 4기부터 예비분을 허용총량 내로 포함, 산업계 이중고 초래, 예비분 물량의 적정성 고려 필요

* Market Stability Reserve: 배출권거래시장 변동성 완화위해 배출권 추가 공급 가능토록 설정한 예비분, **3기 대비 7배 증가**(14백만톤 → 103백만톤)

👉 철강업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감안한다면, 확정 앞둔 **4차 할당 계획에 따른 충격 완화 조치가 최우선적이고 실효적인 과제**

👉 K-Steel법 제정 및 보호조치 도입으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저탄소 전환 환경 조성 이후, 탄소배출 제도 강화 필요

우 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나 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신영택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美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냈으나, 철강 제품의 품목 관세는 기존 50%로 유지됨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저가 철강 공세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이 국내 철강제품에 대해 5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요 사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며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중추적인 산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철강도시인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는 철강산업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강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에, 포항·광양·당진 3개 도시는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관세 재협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인프라 국비 확충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광양시·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 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포항시장
이 강 덕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나 주 영



광양시장
정 인 화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 광 일



당진시장
오 성 환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신 현 덕

관내 기업 하계휴가 실시 86.7%, 하계휴가일수 평균 3.1일

- 휴가기간 3일(46.7%)로 가장 많아, 휴가시기는 8월 첫째주 선호
- 실시기업 66.7%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 자금사정은 전년도와 동일 70%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07월14일부터 07월17일 까지(4일간) '2025년 하계휴가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86.7%가 하계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평균 휴가 일수는 3.1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휴가일수는 3일간 실시한다는 기업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실시형태는 개인연차사용(63%), 하계특별휴가사용(29.6%), 기타(7.4%) 순으로 답했다. <휴가일수 : 5일(13.3%), 4일(10%), 3일(46.7%), 2일(6.7%), 기타(23.3%)>

가장 선호하는 휴가 시기로는 '8월 첫째 주'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월 마지막 주'(16.7%), '8월 둘째 주'(10%), '8월 셋째 주'(3.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항목에서는 연중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겠다는 응답이 43.3%로 조사되었다.

이어, 응답기업의 66.7%가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답했으며, 지급방식으로는 '정기상여금' 30%, '일정금액지급' 36.7%로 조사되었으며, '미지급'(33.3%) 사유로는 '연봉제 시행'(69.2%), '경기 어려움'(23.1%), '자금부족'(7.7%) 순으로 답했다.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50%~100%'(55.6%), '30%~50%'(33.3%), '30% 이하'(11.1%)로 지급할 예정이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 지급'(33.3%), '50만원'(25%), '30만원'(16.7%), '10만원'(8.4%) '40만원'(8.3%), '20만원'(8.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휴가비 지급 관련 자금 사정을 묻은 조사에서는 '전년도와 동일'이 (70%), '전년도에 비해 악화'는 (26.7%), '전년도에 비해 나아짐'(3.3%)로 조사됐다.

광양지역 기업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 72.7P

- 4분기 전망지수 '72.7P' 전분기 대비 9.8P 하락 *2025년 3분기 82.5p
-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분야 '고용,노동시장 유연화'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09월 04일부터 09월 12일까지 (휴일제외 7일간) 조사한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72.7P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기업 중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9.1%인 가운데, 전분기와 비슷할 것 54.5%,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 36.4%로 조사되었다.

이번 전망지수(72.7P)는 2025년 3/4분기(82.5P) 대비 9.8P 하락하면서 16분기(22년1분기~25년4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였다.(전국 기준 73.9P, 전남 기준 60P)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지난 6월 새정부 출범이후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美 관세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변화없음' 77.3%, '일부 증가' 9.1%, '일부 해소' 9.1%, '크게 증가' 4.5% 순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에 대해서는 '변화없음' 63.6%, '일부 가중' 27.3%, '크게 증가' 4.6%, '일부 경감' 4.5%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지역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악화' 59.1%, '변화없음' 36.4%, '크게 악화' 4.5% 순으로 조사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대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 미달'(10% 이내) 40.9%, '목표수준달성' 31.8%, '크게 미달' 27.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 상황에서 매출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내수시장 침체' 40.9%, '수출시장 경기 둔화' 27.3%, '시장 경쟁상황 심화' 18.2%, '기타' 13.6% 순으로 응답하였다.

올해 당초 계획했던 연간 영업이익 목표 대비 실적을 전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에 '소폭미달(10% 이내)' 40.9%, '목표치 달성' 31.8%, '크게 미달' 27.3% 하였으며, 영업수지 실적은 '손익분기수준' 54.5%, '적자 지속' 22.7%, '흑자 유지' 13.6%, '흑자→적자 전환' 9.2%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경영상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 45.5%, '원자재가 상승' 31.8%, '기타' 13.6%, '관세 증가' 4.6%, '에너지비용 증가' 4.5%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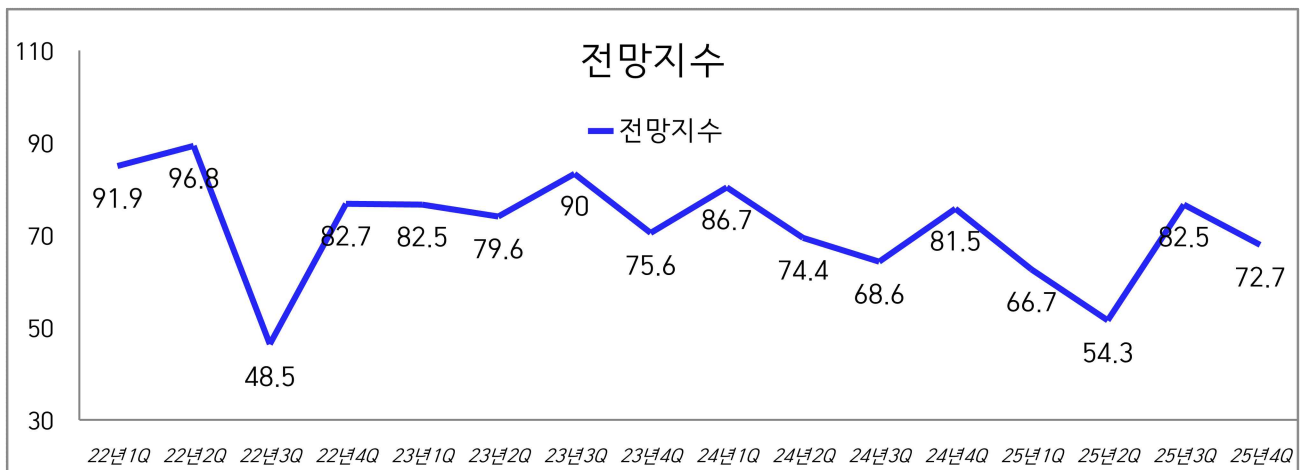
생산 및 조직관리 차원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노사관계’ 31.8%, ‘기업 자금 사정’ 22.7%, ‘인력 수급’ 18.2%, ‘기타’ 13.6%, ‘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 9.2%, ‘기업규제 대응’ 4.5%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기업비용 증가’ 38.6%, ‘노사관계 부담 증대’ 29.5%,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 15.9%, ‘입지, 환경 등 규제 강화’ 11.4%, ‘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 2.3%, ‘납품대금연동제 등 시장규제 확대’ 2.3%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분야로는 ‘고용,노동시장 유연화’ 36.4%,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1.8%, ‘위기산업 사업재편 등 지원’ 15.9%, ‘부품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 6.8%, ‘투자 및 R&D 인센티브 확대’ 4.5%, ‘AI 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 2.3%, ‘기타’ 2.3% 순으로 조사되었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가운데, 철강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 기업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현실적인 정부정책 또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이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



광양지역 기업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 77.3P

- 2026년 1분기 전망지수 '77.3P' 전분기 대비 4.6P 증가 *2025년 4분기 72.7p
-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제흐름 '올해와 비슷' 할 것으로 전망
- 관내기업 80% 이상, 2026년 경영계획 핵심 기조는 '안정(유지) 경영'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지역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12월 0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일제외 9일간) 조사한 '2026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77.3P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기업 중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6.8%인 가운데, 전분기와 비슷할 것 63.7%,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 29.5%로 조사되었다.

이번 전망지수(77.3P)는 2025년 4/4분기(72.7P) 대비 4.6P 증가하였으나, 17분기(22년1분기~26년1분기)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였다.(전국 기준 77.3P, 전남 기준 97.6P)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먼저, 올해(2025년) 매출실적 및 영업이익은 연초 목표대비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묻는 질문에 매출실적은 '연간목표 달성'(36.4%), '10%이상 미달'(36.3%), '10%이내 미달'(25%), '10%이상 초과달성'(2.3%) 순으로 응답했으며, 영업이익은 '10%이내 미달'(40.9%), '10%이상 미달'(34.1%), '연간목표 달성'(25%) 순으로 응답하였다.

올해 영업이익에 가장 부담이 된 요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35.2%), '원부자재가격 변동'(34.1%), '관세·통상 비용'(9.1%), '환율요인'(9.1%), '설비·연구 등 투자확대'(9.1%), '기타(생산감소, 수주감소 등)'(3.4%) 순으로 조사되었다.

환율 상승은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있다. 현재와 같은 고환율 상황이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내용에는 '국내조달·국내판매 중심으로 영향 미미'(70.5%), '수출비중 높지만, 수입원가 부담 커져 실적악화'(13.6%), '수출비중 작고, 수입의존도 높아 실적 악화'(9.1%), '수출비중 높아 실적 개선'(2.3%), '수출·수입 비중 커도 서로 생쇄 돼 영향 미미'(2.3%), '기타(원자재 상승 등)'(2.2%)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이 202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50%), '소폭 둔화'(31.8%), '올해보다 소폭 개선'(11.4%), '올해보다 뚜렷한 악화'(6.8%)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6년 내수 및 수출실적 목표치를 2025년 실제 달성한 실적대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내수목표는 ‘올해 실적수준’(59.1%), ‘10%미만 확대’(13.6%), ‘10%미만 축소’(13.6%), ‘10%이상 축소’(11.4%), ‘10%이상 확대’(2.3%) 순으로 답했으며, 수출목표는 ‘올해 실적수준’(68.1%), ‘10%미만 확대’(11.4%), ‘10%미만 축소’(11.4%), ‘10%이상 축소’(9.1%)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6년 경영계획의 핵심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안정(유지) 경영’(81.8%), ‘확장(성장) 경영’(9.1%), ‘축소경영’(9.1%) 순으로 답했으며, 경영계획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는 ‘경기·수요 전망’(40.9%), ‘비용·수익성 요인’(38.6%), ‘기업내부사정’(11.4%), ‘대외 통상리스크’(6.8%), ‘정책·규제환경 변화’(2.3%) 순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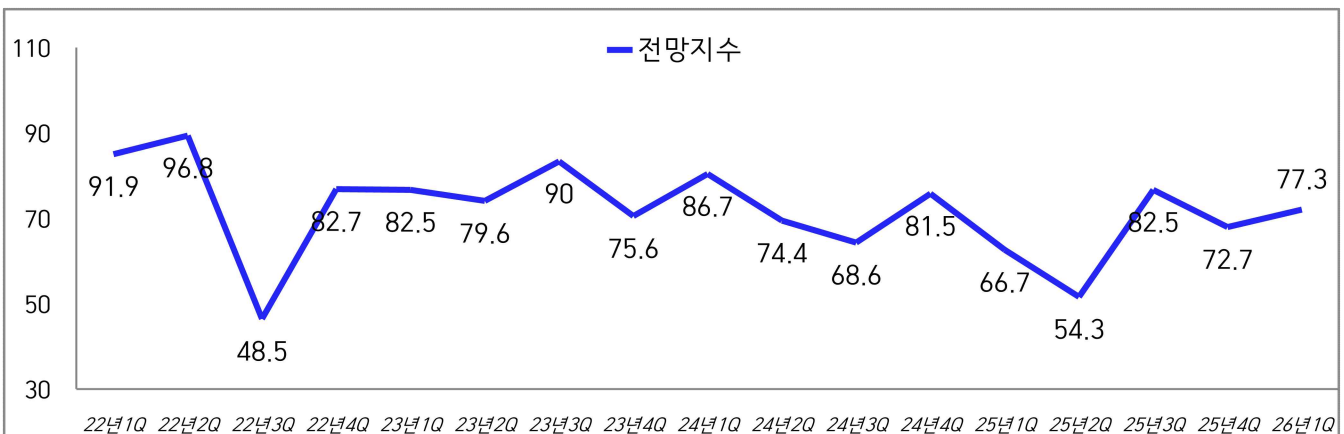
2026년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6.2%), ‘국내기업 투자 확대’(18.2%), ‘수출호조 지속’(17%), ‘정부 확장재정 기조’(15.9%), ‘기업 규제 완화’(12.5%), ‘고환율 해소’(5.7%), ‘민간소비 활성화’(4.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하방 요인으로는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23.8%), ‘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20.5%), ‘유가·원자재가 변동성’(19.3%), ‘글로벌 경기 둔화’(14.8%), ‘기업부담 입법 강화’(11.4%), ‘가계 부채 부담’(5.7%),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악화’(4.5%)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국내투자 촉진 정책’(28.4%), ‘위기산업 지원 정책’(22.8%), ‘관세 등 통상 대응 강화’(19.3%), ‘AI·첨단산업 육성 지원책’(11.4%), ‘환율 안정화 정책’(10.2%), ‘기타(안전·환경 등 규제 완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26년에도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지원을 위한 시행령 제정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이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반대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



◇ 광양상의 지원사업 안내

▶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타) 감원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28시간 이상 근로 등

□ 지원 내용

-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유지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원
- (지원 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월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 \times 0.5 = 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급 주기

- 6개월(1회차,360만원) → 3개월(2회차,180만원) → 3개월(3회차,180만원)
 - * 청년은 6개월(120만원), 12개월(120만원), 18개월(120만원), 24개월(120만원) 지급

□ 참여 신청 : 2026년 01월 01일 이후 신규채용(정규직) 후 신청

*단, 예외적으로 청년채용 이후 참여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신청 가능
*계약직으로 채용시 참여가능 여부 운영기관 문의

□ 참여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광양상공회의소)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문 의 : 광양상공회의소 061-761-5227

2026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시행일정



상시시험

종목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워드프로세서	필기	단일등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 익일 10시 • 실기: 매주 수요일~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 응시한 경우 그로부터 2주 후 화요일 오전 10시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실기: 시험일로부터 51일 후 월요일 10시
	실기	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1·2급			
	실기	1·2급			
전산회계운용사	필기	1·2·3급			
	실기	1·2·3급			
비서	필기	1·2·3급			
무역영어	필기	1·2·3급			
상공회의소 한자	필기	1~9급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	단일등급			
	실기	단일등급			

-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실기: 4월 18일, 10월 10일 * 전산회계운용사 1급 필기·비서·무역영어: 5월·8월·11월 매주 일요일
- * 경영정보시각화능력: 필기 1월·4월·7월·10월, 실기 2월·5월·8월·11월 / 지정주 토요일
- * 상공회의소 한자: 1~3급은 공인민간자격, 4~9급은 등록민간자격 * 시험 개설 여부는 지역 상공회의소별 상황에 따라 다름

국가기술포자 자격 정기시험

종목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한글속기 (1·2·3급)	1회	실기	1·2·3급	03.05~03.11	03.28	04.28
	2회	실기	1·2·3급	08.13~08.19	09.05	10.06
전자상거래 관리사 (1·2급)	1회	필기	1·2급	05.21~05.27	06.13	07.02
	1회	실기	1·2급	09.24~09.30	10.17	11.17
전자상거래 운용사 (단일등급)	1회	필기	단일	05.21~05.27	06.13	07.02
	1회	실기	단일	09.24~09.30	10.17	11.17

국가전문자격 정기시험

종목	회별	검정방법	등급	원서접수	시험일	발표일
유통관리사 (1·2·3급)	1회	필기	2·3급	04.16~04.22	05.09	06.09
	2회	필기	1·2·3급	07.30~08.05	08.22	09.22
	3회	필기	2·3급	10.22~10.28	11.14	12.15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단일등급)	1회	필기	단일	04.30~05.06	05.23	06.22
	2회	필기	단일	08.27~09.02	09.19	10.19

- * 자격발급기관: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 정기시험 환불규정
 - 접수기간 내 환불신청: 100% 환불 / 시험일 기준 5일전까지 신청: 수험료 50% 환불, 접수수수료 환불 불가 / 시험일 기준 4일전부터 환불 불가
 - (예) 시험일이 10일인 경우 6일부터 환불 불가
- * 종목별 검정수수료 등은 홈페이지 참고



"상공회의소 자격시험 접수도 모바일 앱으로"
Korcham Pass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문의전화 | 02-2102-3600

홈페이지 | <https://license.korcham.net>